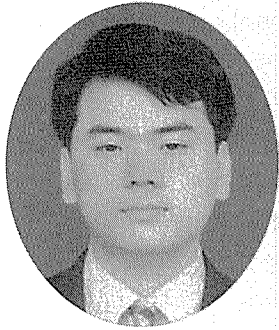


따라서 배우는 인터넷 이야기 (3)

- 인터넷의 대명사 월드와이드웹



글 / 류지창
(주)데이콤 천리안사업단

간혹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넷스케이프를 쓴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넷스케이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대체 넷스케이프는 무엇이길래 이런 표현들이 난무하는가? 넷스케이프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사에서 개발한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Netscape Communicator, 이전에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란 이름이었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식(?)으로 줄여서 부르는 말이며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보 서비스인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을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이름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에 나온 “넷스케이프를 쓴다”는 말은 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월드와이드웹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같은 표현이 쓰이는 이유는 월드와이드웹 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

표적인 인터넷 서비스이고, 또 여기에 이용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로 월드와이드웹이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인지 살펴보자.

인터넷이 운영되기 시작된 후 1992년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는 100% 글자로 된 것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2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원이든 마크 앤드리슨이 개발한 모자익(Mosaic)이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혁명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마치 MS-DOS만을 쓰던 사람이 어느날 매킨토시 컴퓨터의 그래픽 운영체제를 만나보았을때 처럼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 날부로 글자를 기반으로했던 인터넷 정보서비스들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직 월드와이드웹만이 살아남았다. 월드와이드는 글자 그대로는 세상으로 넓게 퍼져간 거미줄(Web)이란 뜻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인터넷상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으며 또한 관계있는 것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가지 형태, 즉 글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의 정보를 하나의 통일된 방법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안에는 모든 소장품에 대한 설명(글자)과 사진(그림)이 정리되어 있으며 시대에 따라 관련되어 있는 자료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형태는 반드시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등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를 실행한 후 이 소프트웨어에 루브르박물관의 주소(실제 주소는 <http://www.louvre.fr>이다.)를 입력하기만 하면 화면 가득히 루브르 박물관의 자료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은 단순히 마우스를 이용하여 관심있는 항목이나 글자를 간단히 클릭만 하면 되므로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는 루브르 박물관처럼 자신들의 정보를 월드와이드웹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기관, 학교, 기업들이 수천~수만여곳에 이른다. 여기에 일반 개인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쉽게 인터넷상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히 인터넷을 “월드와이드웹 정보의 천지”라고 부를만 한 것이다. 이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의 주제도 무척이나 다양해서 비즈니스, 정치 등 학문적인 내용에서부터 연예, 취미생활, 성인물까지 없는 종류가 없다.

따라서,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할 줄 알게되면 이전에는 접할 수 없는 전세계의 수많은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1세기는 정보의 세기인데 남들보다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면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인터넷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월드와이드웹이며,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등의 월드와이드웹용 소프트웨어이다. 현재 월드와이드웹 이용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다. 현재 이 두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시장을 놓고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는 상용 소프트웨어여서 구입을 해야만 정품을 쓸수 있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으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넷스케이프사에서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두가지 소프트웨어를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대개 두가지를 모두 설치해 놓고 비교해가며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현재까지 시장 점유비율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가 높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맹추격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는 윈도우98의 출시와 함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배포하기 위해 법정에서 투쟁 중이어서 윈도우

98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월드와이드웹 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쉽게 배포되기 시작하면 월드와이드웹 이용자들도 계속 증가하게 된 것이고 이를 예상한 온라인 비즈니스 또한 급속한 발전을 시작했다. 현재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홈쇼핑이 대표적이다. 상품의 카탈로그를 월드와이드웹을 통해 살펴보고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이 배달되어 오는 것이다. 이러한 홈쇼핑 사업은 매장과 점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들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여 다른 곳보다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시간으로 음성과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월드와이드웹에 접목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이 가능해 졌다. 전파를 이용하면 외국으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위성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바로 전세계로 방송송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음성을 이용한 온라인 토익강좌 등의 인터넷 학원들도 등장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월드와이드웹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들의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리해서 안내해 주는 기업인 Yahoo! (<http://www.yahoo.com>)가 조그만 벤처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인터넷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기업으로 발전하여 “성공한 벤처기업”의 대명사로 자리잡았고 Yahoo!를 시작한 이제 나이 30인 두 사람의 청년은 백만장자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월드와이드웹 서비스는 이제 인터넷 이용의 대명사이며, 또한 앞으로 꽤 오랫동안 이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월드와이드웹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이용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서점에 나와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이용안내 서적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데, 최근에 나온책,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CD-ROM으로 제공하는 책을 권한다.